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12**

새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모든 분들이
하느님의 보호하심 아래 건강하시며,
그분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팔 북동쪽에 있는 러수아 지역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asuwa



러수아는 네팔과 중국 티벳의 국경 산악지대입니다. 2015년 대지진 이후 중국과의 무역 통로가 되었는데, 이 지역 주민은 중국 티벳 어느 정도까지 비자없이도 왕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바울의 선교거점 지역 대부분이 정치적, 문화적, 상업적 등의 요충지였음을 보았을 때, 러수아가 앞으로 상업적 요충지로서 중국 티벳으로 났음의 거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려면 3~4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몇 명씩 모여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모는 대부분 작은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넉넉치 않은 상황 가운데 식비까지 대줄 수 없어, 아이들은 평일에는 학교에 다니고 주말에는 집에 돌아가 일주일 양식을 싸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에서 약 7시간 걸리는 이곳은 10월부터 5월까지의 건기 시즌이라 그나마 괜찮지만, 우기 시즌인 6월부터 9월까지의 4륜 차량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많은 비로 인한 산사태로 길이 달혀버리는 어려운 땅입니다. 약 2년 전에는 이 근방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스기사가 우기 시즌에 방문하다 순기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기 시즌에 사역을 셋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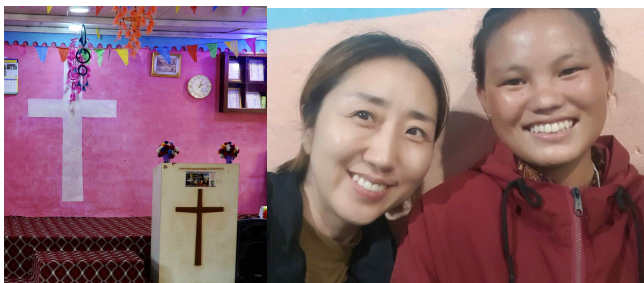
러수아에서의 사역은 두 가정과 함께 연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전 미팅과 7도로 준비한 1차 탐방은 이 지역의 인도하심을 보는 시간이었고, 그때 만난 7회들과 지난달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샤프로베쉬 7회**’는 믿는 아이들은 많지만, 위에 쓴 것처럼 **매주 식량을 가지러 3~4시간을 걸어서 집에 가야** 합니다. 상황은 안타까우나 집과 떨어져 생활하는 이 기간은 오히려 아이들이 **복음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러수아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따망 종족**으로, 본래 뿌리는 티벳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티벳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뿌리내린 티벳 불교의 영향 아래 놓인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은 가족과 떨어져 **비움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7회에서 만난 어린 따망 아이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려서부터 7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매주 가지 않고 적어도 **한달에 두 세번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양식을 위한 재정과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샤프로베쉬 교회와 그리스도인 따맘 자매

러수아의 띠므레 지역

‘**히말라야 로고스 크르스탄 펠로우십 공동체**’는, 일을 위해 이 지역에 온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교회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 양철로 된 작은 처소를 만들고 예배를 시작한 곳입니다. 전임 사역자가 없어 한달에 한번정도 목사님께서 방문하시고 나머지는 부부가 예배를 맡고 있습니다.

워낙 작은 동네인데다가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는 **민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학교인 공부방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부와 이 사역에 대해 나눴을 때 공동체 자매가 유아교육을 공부했고, **이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히말라야 로고스
크리스찬 펠로우십 공동체

러수아의 사역은

먼저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나눔을 자연스럽게 듣고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지역 사람들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티벳을 향해 나눔 전도자가 세워지길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교회들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동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2022년 1월 네팔에서 신이삭, 함리브가 드립니다.